

취 임 사

존경하는 종정예하와 원로대덕 큰스님 그리고 전국에서 수행과 포교에 진력하시는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를 보내주신 대통령님과 이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통해서 ‘조계종의 새로운 역사’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난 4년의 과정이 종단 변화와 혁신의 씨앗을 뿌린 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종단 백년대계를 열어가는 불교중흥의 ‘공든 탑’을 쌓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인식 위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원력이 있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확신 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사로움을 멀리하고 소신 있는 종무를 바탕으로 종단과 종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전망을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불교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이끌어내는 소임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탐마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여러분!

지난 1,700여 년 동안 한국불교가 국가와 민족의 정신사를 향도해왔던 근본에는 불가에 내재한 천년의 원융 화합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불교를 이어온 근간이었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통합의 원리와 정신으로 극복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도 물질문명의 폐해를 극복하고 정신과 가치 중심의 문명사적 대안으로서 불교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의 지도층이 갖고 있는 불교에 대한 선호도와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인 흐름에 한국불교가 참여하고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과감한 혁신과 화합 승가의 단합된 결집이 필요합니다. 지난 승가교육 개

선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생과 고통을 함께 하는 승가의 위상을 정립하고, 선의 의 경쟁조차도 종도를 향한 애종심으로 높이 승화시키며, 서로의 작은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화합의 물줄기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종단 내부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최대한 수렴하여 종무에 반영할 것이며, 널리 인재를 등용하여 종단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4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당시 발표한 정책은 종단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차대한 과제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단 구성원 모두의 서원이기도 합니다. 수행종풍을 진작하고 중앙종무기관과 지방종정기관의 조화로운 발전, 지속적인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조계사 역사문화공간 조성, 승가복지의 시행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종단적 과제입니다.

특히 자성과 쇄신 결사는 한국불교의 좌표를 제시하고 거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종단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를 비롯한 종단 지도층의 모범적인 수행과 대승보살의 실천적인 자세를 통해 종단 저변에 쇄신의 기운을 널리 확산시켜 내겠습니다. 열린 자세로 종도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낮은 자세로 약속한 정책을 실현하여 종단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과 국민여러분!

우리가 살고 서 있는 사회는 시장만능주의와 무한경쟁을 통해 그야말로 적자생존의 논리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중심과 연대와 협력의 가치는 ‘돈과 시장’의 욕망 앞에 생명력을 잃고 있으며, 빈부격차에 의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생의 고통은 부처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못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수행자의 본분사입니다. 제34대 총무원은 이러한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고통 받는 우리 이웃의 벗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중도 사상과 ‘화쟁과 회

통'의 관점에 입각하여 다원화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중재하기 위한 본분에 충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획일화된 이념 논리나 한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는 진영논리는 사회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화쟁과 회통'은 실타래처럼 얽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감로수가 될 것이며, 사회의 합리적인 의식과 사고를 높여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 종단은 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대와 소통하며 근본적인 변화와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때론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없이 종단의 밝은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고 하신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처럼 우리는 종단의 미래를 위해 화합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격랑의 바다를 헤쳐 가는 진정한 도반입니다. 화합된 승가와 사부대중의 힘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갑시다. 국민과 함께 하는 희망과 행복의 시대를 맞이합시다. 다시 한 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취임 법회에 참석해주신 원로 대덕 큰스님, 그리고 내외빈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2013)년 11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합장